전남대, 다시 혼돈 빠지나

"총장 후보들 논문 제대로 검증 안됐다" 재심의 요청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은 없다고 결정했던 전남대 총장 임용후보자들의 논문표절 의혹 심사에 대해 대학 내부에서 재심 요청이 제기됐다.

재심의를 요청한 이들은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심의가 진행됐다며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총장임용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2건의 재조사 요청이 접수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위원회가 "중대한 연구 윤리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총장 임용후보 1순위인 지병문 교수와 2순위인 윤택림 교수의 논문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 교수의 2005년 논문은 4개의 외국 논문을 짜깁기해 서문과 이론적 배경 등에서 내용은 물론 각주까지 그대로 베껴 실었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이중게재는 확실하나…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의 논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중대한 연구 윤리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해 마치 작은 하자는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결정은 ▲지 교수 논문은 문제(이중게재)는 있으나 중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윤 교수 논문은 문제는 없으나 중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등 양자의 검증 내용은 다르면서도 결론은 동일하게 도출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나 변론의 기회를 주지않고 결정을 내리고 발표한 것 등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조사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남대는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재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병문 교수는 "이미 논문검증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며, 당시의 연구 윤리상 별다른 문제가 될 게 없는 논문"이라면서 "총장임용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입시전략 설명회에 쏠린 눈

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2013 대학입학 정시지원 전략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학부모, 수험생들이 강사가 소개하는 대학별 지원전략을 유심히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등교사가 학생 머리에 우유 붓는 등 비인격적 행위

"선생님을 고발 합니다"

교사 "부끄러운 일 한적 없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머리에 먹다남은 우유를 붓고 동물처럼 체육관 바닥을 기어가게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광주 한 초교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 최근 학생들이 먹다 남긴 우유를 A학생의 머리에 부었다. 이 교사는 "우유를 다 마시지 않고 남겼다"며 해당 학생의 머리에 우유를 붓고 난 뒤 "머리에 영양제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는 1학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학생 3~4명의 머리에 우유를 부었다.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A4용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광주일보사에 보내와 도움을 요청했다.

A학생은 "체육시간 내내 체육관에서 물개걸음(바닥에 누워서 손을 이용해 바닥을 기는 것)과 토끼뜀을 시키고 단체로 운동장을 열바퀴나 돌게 해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울었다"고 썼다.

김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도 자주한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선생님께서는 평소에도 말씀을 예쁘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미친X, 미친XX'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 담임교사라 그동안 학교에 항의도 못하고 참았는데, 교사라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학생들이 우유를 싫어해 건강을 위해 다 마시도록 했을 뿐 학생 머리에 우유를 붓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체육관에서 물개걸음과 토끼뜀을 시킨 것은 동물들의 생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콘텐츠 대표 구속 기소

강시장 등 공무원 연루 혐의 못찾아

광주지검, 갬코 수사

검찰이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 부실에 공무원의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허황된 미국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사업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5일 제대로 기술력 검증 없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모(54)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측 공동사업자인 K2AM 측으로부터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자문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2AM 대표인 미국 시민권자 B(53)씨를 기소중지하고 계좌추적 요청 등 미국 측과 형사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11년 1~7월 자문위원 박씨의 소개로 기존 3D 변환 비용보다 10분의 1의 비용으로 속도도 2~3배 빠른 기술을 갖고, 1년 수주물량도 영화 4000편 분량을 확보했다는 B씨의 말만 듣고 미국업체에 65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을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등 공무원 연루 여부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께에야 사업의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김 대표를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도 김 대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훈련중 허리다친 군인 유공자 인정해야"

광주지법 판결

강하 훈련 중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디스크가 생긴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일 서모(39)씨가 순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헬기 레펠 훈련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며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당시 사고로 허리에 무리를 줘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95년 3사관학교에 입교해 2008년 육군 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완전군장을 하고 11m 상공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착지하는 훈련을 받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서씨는 수술 후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전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흥비 마련하려… 이모집 턴 10대

광주동부경찰은 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척집에서 금품을 훔친 유모(16)양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양 등은 지난 달 27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산수동 조모(여·43)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패물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양은 가출한 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이모인 조씨의 집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훔친 패물을 금은방에 팔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갑길 집유 석방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5일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구청장은 재판 후 풀려났으며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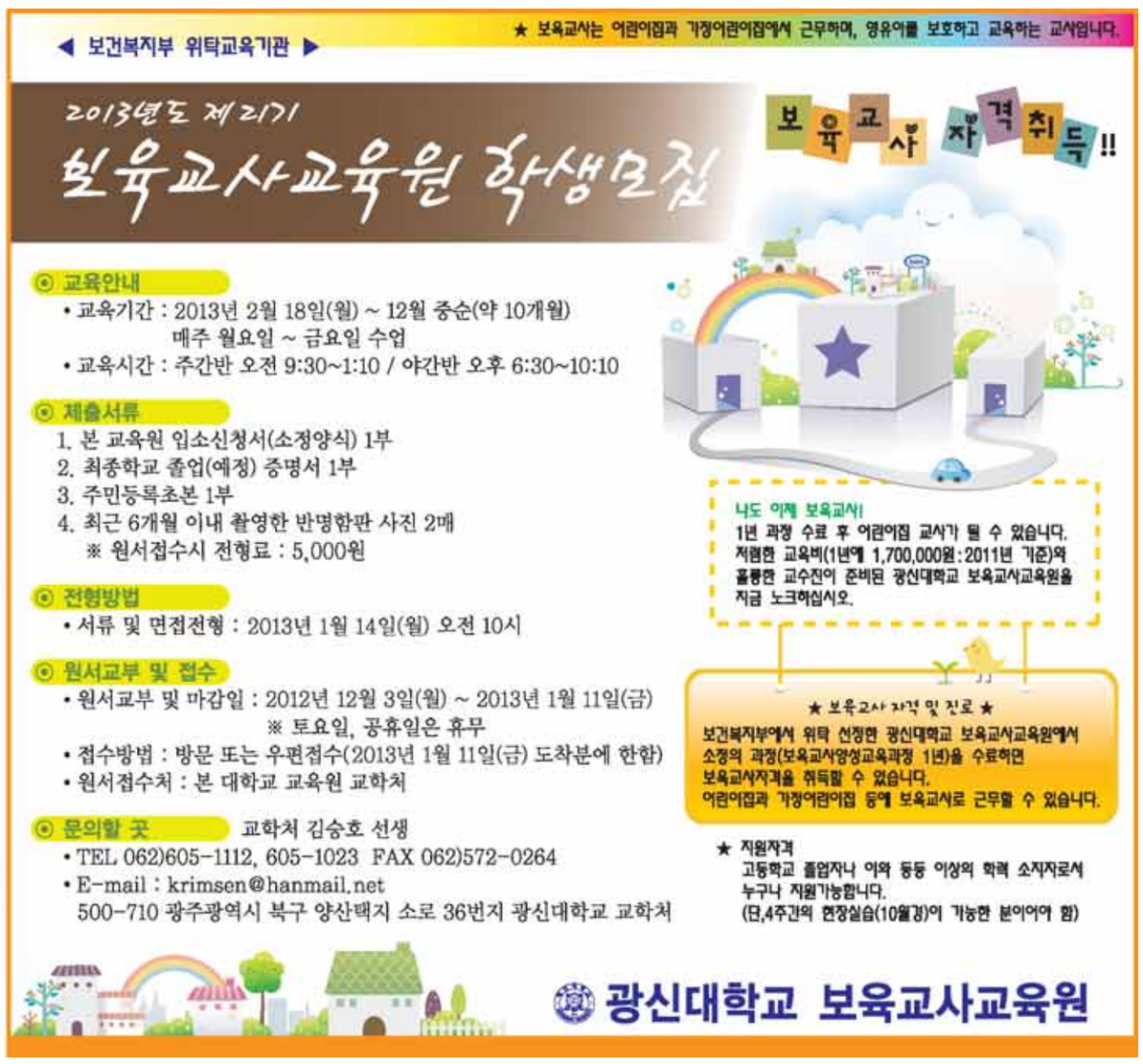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유세 구경하던 절도범 현장서 덜미

쌍나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유세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구경하던 20대 절도범이 현장 지원 나온 형사에게 덜미를 잡히는 '불운'(?).

○…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김모(29)씨는 지난 9월 여수시 한 모텔에서 잠자고 있던 손님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모텔 절도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1범의 김씨를 유세장에서 우연히 발견해 붙잡게 됐다"고 귀띔.

/여수=김창화기자 chkim@